

# 三國時代의 建築文化

## - 高句麗의 建築(I) -

張慶浩

문화재연구소장

Report/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Prehistoric Age  
by Chang, Kyung-Ho

### 三國의 建築文化

우리나라의 建築文化 발전은 高句麗, 百濟, 新羅의 3 국이 정립하면서 그 확고한 기반을 갖고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이전의 漢四郡의 지역이나 그 郡縣의 하나였던 낙랑등지의 건축문화도 우리의 건축문화에 이바지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고유한 문화발상보다는 漢으로 부터의 外來文化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는데서 이 삼국시대의 건축문화만큼 전통성의 중요가치를 지니지 못했다. 따라서 삼국시대는 우리나라 전통건축문화를 이루는 보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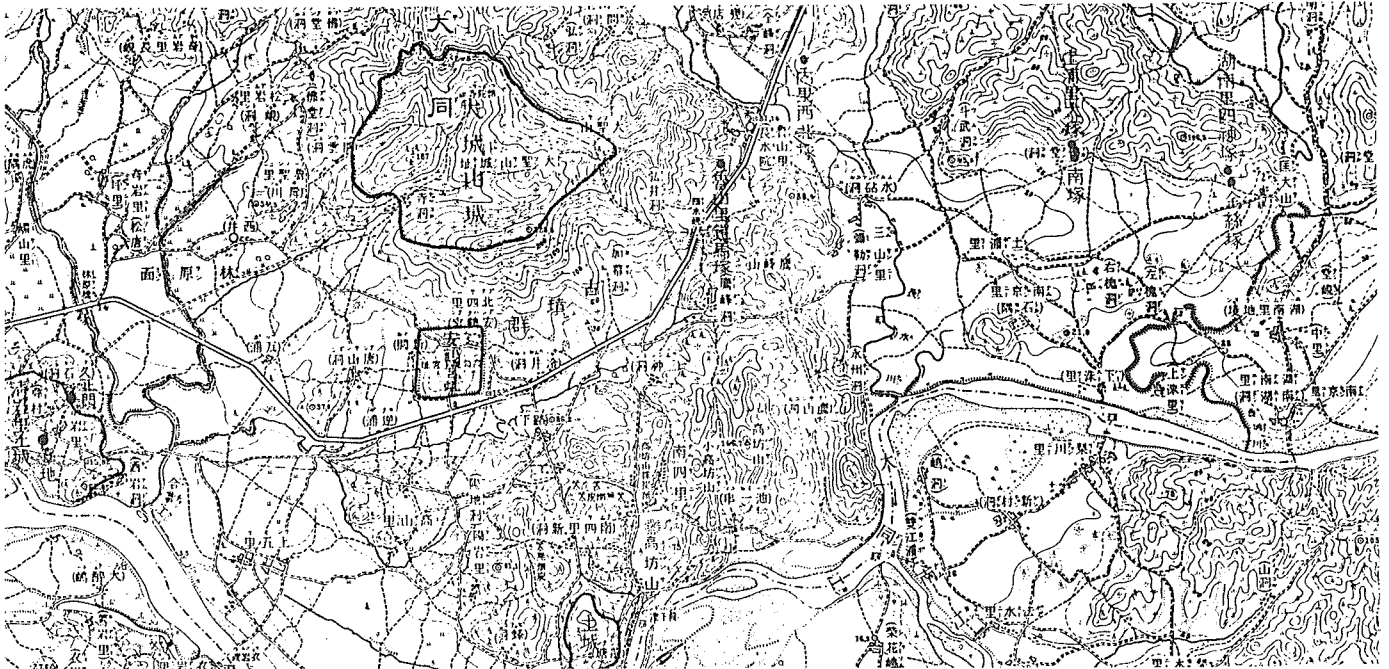
高句麗의 건축문화는 中國 漢代 건축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前章에서 이미 기술했듯이 溫突이라는 우리 건축의 특징적 煖房施設을 발전시킨 한 예로보아도 그들은 남의 建築文化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古墳壁畫에 나타나는 건축의 木構造를 보더라도 기둥의 앤다시스라든가 주두, 첨차등 독특한 造形美를 보이고 있다. 百濟나 新羅의 건축에서는 각각 그들대로의 獨持性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 있어 百濟에서는 기교와 섬세성으로 또 新羅는 堅實성과 우아함을 보여 고구려의 強直하고 힘찬 특성에 대비된다.

삼국시대에는 특히 중국으로 부터 佛敎를 받아들여 寺院建築文化가 성행·발전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傳統建築文化의 새로운 章을 열어 꽃을 피우게했다.

더욱이 新羅 皇龍寺의 9층탑과 같은 거대한 木塔은 그 당시 造成技術도 기술이려니와 이 塔을 구심점으로 하여 국민의 사기를 和合하고 그 佛心에 의해 마침내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상징적 건축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 1. 高句麗의 建築

三國中 高句麗가 鼎立할 즈음 大同江 流域에는 기원전 108년에 漢의 武帝가 半島를 침략 樂浪, 臨屯 菟帝, 眞番의 漢의 郡縣과 夫餘, 高句麗, 三韓의 여러 部族聯盟體가 滿州로부터 한반도에 걸쳐서 병립하여 中國 새력권내에 있었다. 이중에 朱蒙을 始祖로 하는 高句麗는 기원전 37년에 삼국중 제일 먼저 일어나 중국세력과 투쟁을 하며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太祖 때 부터 故國川王에 이르는 동안에는 광활한 토지를 점유하고 王室相續과 國家體劑를 이루기 시작하여 藥浪郡을 몰아내고 大同江 流域의 平野를 차지하였다. 小獸林王 2년(372)에는 奏으로부터 佛敎를 받아 들임으로써 새로운 建築文化의 효시를 갖게 하였다.



▲高句麗 遺蹟 分布圖

427년(長壽王 2)에는 남하정책의 일환으로 도읍을 通溝에서 평양으로 옮기고 大帝國으로서 군림하여 남쪽에 中國의 諸國과 南으로 百濟와 新羅의 끊임 없는 각축을 벌이면서 결국 668년에 國力이 다하여 羅, 唐 연합군에 의하여 망하였다. 고구려의 땅은 원래 山勢가 험하고 평지의 땅이 좁아서 인정이 각박하고 戰爭을 잘하여<sup>2)</sup> 건축이나 기타 예술의 美的表現이 세차고 장엄하며 강인한 특징을 보여준다.

#### 가. 都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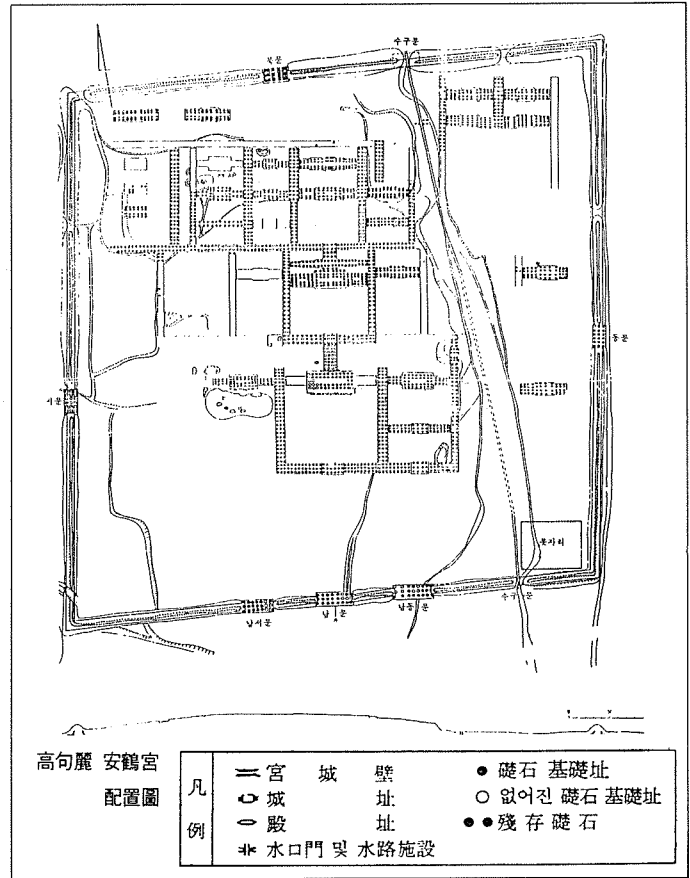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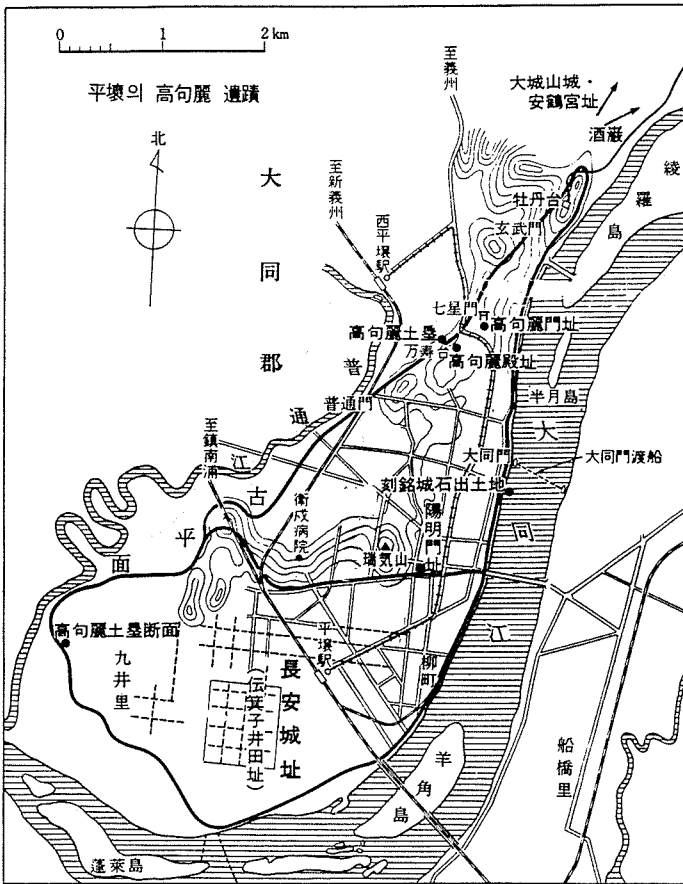
최초로 도읍한 땅은 沸流江流域의 줄본 부여라고 믿어지며 341년에는 國內城으로 옮기고 427년에 平壤 大城山下에 천도하였으며 586년에는 長安城을 축조하였다. 國內城은 만주 압록강 北岸 通溝에 위치하고 당시에 王宮址로 추측되는 곳이다. 평면은 長方形으로 성벽의 전체 길이가 약 2,800m나 되며 성벽은 잘다듬은 돌로 쌓았는데 성벽의 높이는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5~6m이고 그 밑부분의 두께가 약 10m로 윗부분은 3~5m이다. 성의 東, 西, 南에는 門址가 있고 北쪽에도 門址가 있었던 흔적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동벽에는 웅성(甕城)을 갖춘 문 1개소, 서벽에는 역시 웅성을 갖춘 문 2개소와 남벽 동쪽에는 폐문 흔적이 있는 문 1개소 그리고 북벽에도 1개소의 문 흔적을 볼 수 있었다 한다.

성의 네 귀에는 角樓地가 있었고 성벽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치(雉)를 두어 방어에 유리하게 했는데 동벽에 3개, 서벽에 1개, 남벽에 2개, 북벽에 1개를 두었다. 성벽 밖에는 하천을 이용한 폭 약 10m의 垓子를 두었던 것으로 추정하나 이것이 성을 완전히 돌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城內에는 초석과 기와편이 많이 출토되었는데 이들은 고구려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赤色 및 炭黑色의 기와편이다.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어 大城山 밑에 安鶴宮城과 또 평양일대에 長安城을 구축하고 험한 산위에는 大城山城을 쌓았던 것 같다. 평양의 都城을 대동강 西岸과 그 西쪽에서 北南으로 흐르는 普通江 사이에 남쪽 평지와 북쪽 구릉지를 이용한 도성으로서 북쪽에 모란봉과 모란대(牡丹台)가 있고 여기서 남쪽 평야지역에 長安城을 두어 그 사방을 성으로 둘러싸은 마치 자루형을 한 평면이다. 동에는 大同門, 서에는 普通門 그 북쪽에 七星門과 玄武門이 있고 모란대와 만수대의 사이에는 고구려의 門址와 건물지가 밝혀진 바 있다.<sup>4)</sup>

長安城은 高句麗 後期의 대표적 도성으로 현재 평양시 일대에 구축한 그 둘레 약 23km<sup>5)</sup>이며 면적 약 30km<sup>2</sup>에 달하는 큰 도성이다. 長安城은 평지와

구릉을 잘 이용하여 北城, 內城, 外城 등으로 구성되었고 밖에는 대동강과 보통강이 둘러 막았기 때문에 자연 해자를 이루어 요충지로서 방어에 유리하였다. 그러나 울밀대와 모란봉에 이르는 구간에는 성벽 안팎에 해자를 두었는데 성벽 안에서는 성벽에서 약 3m 떨어져 폭 10m 정도로 파고 성벽 밖에서는 약 30m 떨어져 5m 폭으로 조성되었다.<sup>6)</sup> 이 垓字는 원래 宮城이나 都城 그리고 邑城 밖에 濠(못)를 두는 것을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周濠, 隍 등으로 불리우고 우리나라에서는 참호 또는 해자라고 불렀다. 이 해자는 적이 성벽을 오르지 못하도록 물을 두어 방어에 효과를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적의 사정거리를 멀리하는 효과 그리고 도성의 배수로, 성곽의 보호와 用水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두개된 것이며 이러한 실용적인 목적 이외에도 宇宙觀의 思想으로서 또는 天子의 居處 明堂의 개념으로서 고대 중국의 明堂 또는 古墳 주위에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7)</sup> 長安城은 중국 隋都城制를 참고로 하여 바둑판 모양의 市街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일명 箕子井田이란 칭호는 이를 대변해 주기도 한다. 1909년 조사된 바에 의하면 古石票로 보아 街路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었는데 그 크기는 작은 것은 高麗尺으로 15尺 큰 것은 40尺이 되었다.



구획의 크기는 500尺으로서 正方形으로 만들어졌으며 정연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井田址의 가로에는 깨끗한 모양의 큰 냇돌로 鋪石된 흔적이 남아 있어 그 당시의 것으로 추측된다.<sup>8)</sup>

이 도성에는 여러곳에 城門址가 조사되었는데 1935년에 모란대 입구를 절토하다가 문지가 노출되었는데 폭이 4.8m 장이 7m로 바닥에 부석을 깔았으며 門扉石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木製 門柱를 세웠던 장방향의 홈을 파고 문짝을 달았던 귀도리금과 문짝에 달았던 반구형 확금이 노출되어 문짝의 두께를 추정하면 철판을 포함하여 약20cm나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바닥에는 폭 28cm로 패여진 수레바퀴의 홈이 좌우 1.45m 간격으로 각 1개씩 새겨져 있었다.<sup>9)</sup> 또 1935년에 萬壽臺에서 廻廊形의 장방형 건물지가 발굴되었는데 여기서는 方圓形 礎石이 노출되었으나 高句麗와 高麗時代의 遺構가 중첩되었다. 이 부근에서 내외의 隍을 둔 羅城의 土壘도 밝혀졌다.

이상 高句麗의 성곽은 그 遺址에서 일부가 확인되고 있지만 古墳壁畫에는

수 많은 城廓圖가 그려져 있어 도성의 성행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즉 城廓圖는 遼東城塚, 藥水里壁畫墳, 龍岡大墓 및 三室塚 등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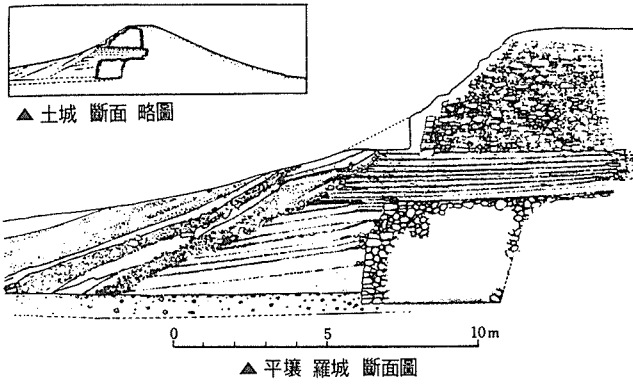
#### 나. 宮闕建築

고구려의 궁궐건축은 通溝 國內城에 宮址와 평양 大城山城 밑에 安鶴宮址, 모란대, 올밀대에 있는 古宮址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安鶴宮址에 대하여는 근년에 발굴 조사되어 그 보고서가 나와 전모를 알 수 있다.<sup>11)</sup>

안학궁지는 사방 약622m 되는 네모진 평면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는 토성으로 둘러져 있다. 성벽은 밑폭이 8.2~10m 인데 성벽 내외에는 춤 25cm~30cm의 성돌을 계단식으로 쌓아 견고하게 했다. 城門址는 성 남변에 3개 동, 서, 북에 각 1개소가 발견되었는데 남쪽의 중앙 및 동문은 폭이 45m나 되었고 초석의 積心으로 보아 정면 7間, 측면 2間의 거대한 문이었다. 또 동, 서, 북변의 문은 각 5間×2間의 문지였고 이들 圓形 積心石의 직경이 약3m~3.5m 였다. 이 적심석 위에 과연 초석을 얹고 기둥을 세웠던 것인지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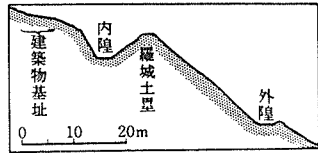
城樓門의 武砂石을 쌓기 위한 기초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적심의 흠어짐으로 보아 만일 武砂石을 쌓기 위한 적심이라면 정면으로 보아 2列式 묶어 보아도 서쪽 光化門과 같이 3개의 아치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성벽 東邊과 西邊밖에는 해자를 두었음은 알 수 있는데 폭은 약80m~120m 이고 그 깊이가 1m 정도이다.

궁성내의 건물지로 보아서 南北 中央軸을 기준으로 5개의 區를 이루었는데 중심선상에 남쪽에는 “남궁”과 “중궁” 그리고 북궁이 있고 그 좌우에 동궁과 서궁이 있다. 이들 주요 궁전들은 주위에 複廊으로 둘러싸였고 남궁 회랑지에서는 圓形과 角形의 초석이 출토되었는데 그 크기가 70~90cm이고 두께가 15cm이며 적심은 깊이 60~70cm로 파서 碎石을 3~4층으로 이루어 다졌다. 궁전의 柱間은 대체로 2.5m, 3.7m, 4.25m, 6.25m 등으로 일정치 않다. 中宮區 북쪽 끝과 西宮區 남쪽에는 조산으로 정원을 꾸미었고 또 성내의 동남 모서리에는 방형의 못터가 있고 궁성의 남북으로 가로지른 小川이 있어 북변과 남변의 성밑에는 水口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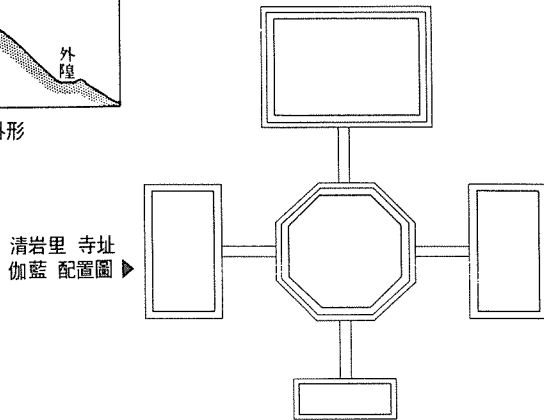


▲ 土城 断面 略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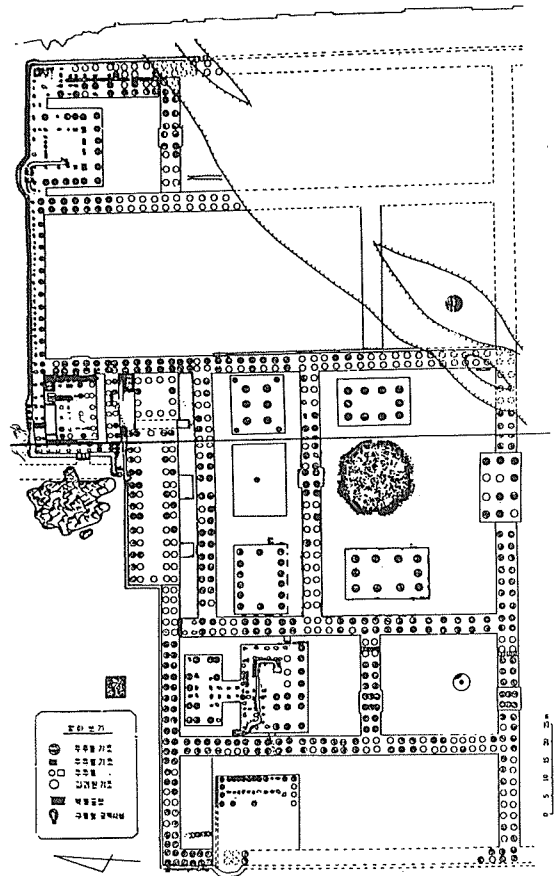
▲ 平壤 羅城 断面圖



▲ 平壤 羅城 断面 外形



清岩里 寺址  
伽藍 配置圖



▲ 推定 定陵寺址 伽藍 配置圖

있었다. 이와 같은 宮室의 배치는 高句麗 寺址에서도 볼 수 있듯이 漢代의 天文占星思想에서 유래된 五星座의 配置를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高句麗에서는 특히 궁실을 치장하기를 좋아하여 南史에 의하면 「高句麗俗好修宮室」이라 하였고 梁田公記에는 「高句麗, 王宮內 有水晶城可方一里 天未曉而明如晝」(고구려 왕궁내에 第一里의 수정궁이 있어 새벽에 하늘이 밝기전에 낮과 같이 밝았다)라 하였고 삼국사기 烽上王條에 「君者百姓之所瞻也, 宮室不壯麗, 無以示威重」(임금은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바인데 궁실이 장려하지 않으면 위엄과 무게를 보일 것이 없다)라 하였음을 보아 능히 알 수 있다.

이 안학궁지 發掘 調査에서 瓦當, 鷓尾, 土器 등 많은 유물이 出土되었는데 암기와는 폭이 37~58cm이며 길이는 65~70cm되는 큰 기와들이고 특히 곽행이文의 唐草文 암막새가 많이 출토되어 지금까지 三國時代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던 것이 새롭게 거론될 충분한 자료가 된 것이다. 솟막새의 대부분은 고구려 특유의 만두형 8엽 연화문 또는

4엽 區劃線帶文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중에는 시대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출토되어 주목이 된다.

다. 佛寺建築

고구려는 불교를 받아들인 3년 이후인 375년에 肖門寺와 伊弗蘭寺를 건립하고 393년에는 평양에 9寺를 창건하였으며 478년에는 金剛寺를 창건하고 榮留王(618~642)代에는 中臺寺, 珍丘寺, 維摩寺, 燕口寺, 大乘寺, 大原寺, 大同寺, 開原寺 등이 있었으며, 寶藏王(642~668)代에 延福寺와 白鹿園寺 그밖에 靈塔寺, 育王寺 등이 있었음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중 영담사에는 8면 7층의 石塔이 있었고 요동성 育王塔은 7층 木塔이 있었다.

● 伽藍의 確認

伽藍이라함은 梵語로 Sangharama에서 유래되어 한자로 音譯하여 僧伽藍磨, 또는 僧伽薩磨로 쓰여져 「衆園」「僧園」「精舍」로도 번역된다. 釋氏要覽에 의하면 「...園者들이 生植을 하는 곳이고 佛弟子들이 集居하여 佛道를 닦아

聖果의 뜻을 갖는다」라고 하였다. 중국의 伽藍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성행하던 유교의 文廟나 도교의 寺院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佛寺의 초기에는 남북 軸線上에 주 건물과 탑을 배치한 一塔式 伽藍이 이루어져었는데 이것은 중국의 순례자가 초기에 Khotan을 방문했을 때 보고 온 형식이라고 하며 隋唐時代에는 雙塔式 가람이 이루어졌다고 한다.<sup>11)</sup> 그러나 실제 이렇게 오래된 현존하는 가람은 중국에서는 볼 수 없고 발굴 조사로서 명확히 알려진 것도 없다. 다만 이러한 폐쇄적이고 좌우 대칭적인 건물의 배치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주택 건축에서 사용해 왔던 四合院 配置에서 그 기본을 둔 것 같다.<sup>12)</sup> 四合院의 住宅은 中央 主軸에 따라 주요 건물을 배치하되 그 좌우에는 부속건물을 대칭으로 배치하고 사방을 담장으로 둘러막은 배치로써 중국에서 성행하던 陰陽五行思想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믿어진다.

우리나라의 寺刹伽藍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1938년과 1939년에 日人들에 의하여 조사된 평양 부근의 清岩里寺址와 上五里, 元五里 寺址인데 그 가람의 형태는

중앙부에 八角 殿址를 중심으로 동  
동, 서, 북에 金堂이 놓이고 남쪽에  
中門을 둔 1탑 3금당식 가람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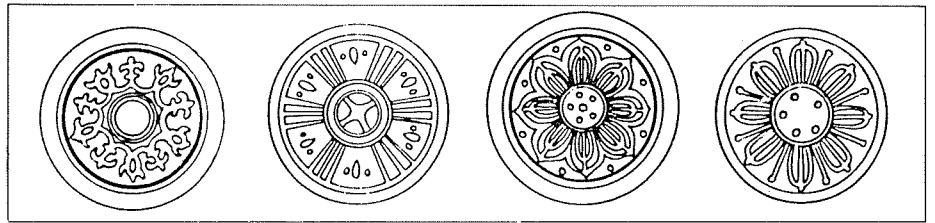
● 清岩里寺址

이 중 清岩里 寺址는 평양에서 동북쪽  
약 3km 떨어져 대동강 上流右岸에  
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넓은  
대지위에 서남향한 가람이었다.  
중앙의 8각 기단은 全幅이 약 23m 나  
되어 한변이 9.5m이다. 주위에는  
폭 70cm 범위에 割石을 깔았는데  
이것은 落水받이 시설 같았다. 이  
북편에 장방형 건물지가 노출되었는데  
고려시대 그 전대의 유구를 이용하여  
재건한 듯 하였다. 그 기단의 규모는  
길이 32.47m 폭이 19.18m였지만,  
기타 동, 서 金堂址와 중문지는  
흔적만이 남아있어 규모를 뚜렷이 알 수  
없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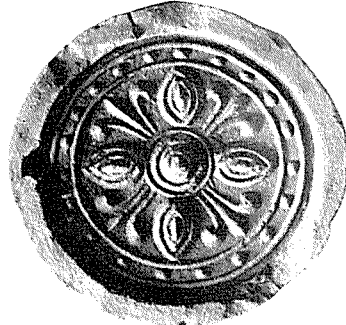
이 사지는 中心廓의 규모만도 동서  
100여m이고 남북이 150m로 추정된다.  
이곳 사람들은 이곳에 옛적의 金剛寺가  
있었다고 하며<sup>13)</sup> 이곳 대동강 여울을  
「금강탄」이라 하고 그 주변 밭을  
「금강전」이라 하여 이것이 金剛寺로  
추측된다.

● 上五里遺蹟(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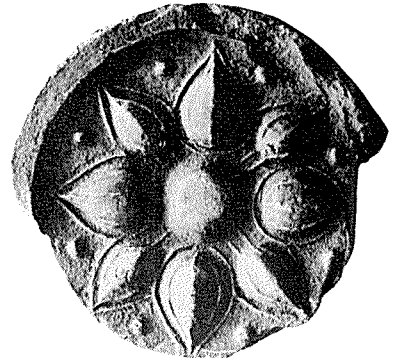
이 遺蹟은 清岩里寺址와 같이  
대동강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평양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또는 대동강의  
명승지인 酒巖의 상류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遺地의 중앙에는  
청암리에서와 같이 중심에 일변  
약 8.2m되는 八角 殿址가 있고 그  
건물지 주위에는 역시 낙수받이 시설이  
폭 90cm 정도로 깔렸는데 이 시설에서  
동서로 약 4m 떨어져서 동서  
金堂址가 노출되었다. 이 금당지는  
동서 12.6m 남북 25.8m의 기단을 깔고  
기단 위에는 길이 50cm의 板石을 정연히  
並置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다. 기단  
外緣에는 약 2m 간격의 방주형 석재가  
놓였는데 그 상면에 홈구멍이 뚫린 것과  
촉이 있는 것이 번갈아 있어 이것이  
난간을 세웠던 자리로 추측됐고 8각  
塔址에서 이들 동, 서 금당지를 잇는  
鋪石과 또 이 탑지의 기단 남북변  
중앙에 계단이 있었던 흔적으로 보아  
북금당과 중문지가 있었던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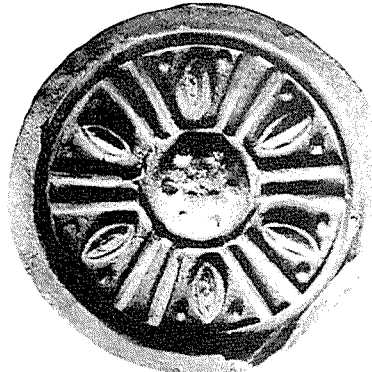
▲ 定陵寺址出土 숫막새 文樣



▲ 土城里 出土 숫막새 文樣



▲ 安鶴宮 出土 숫막새 文樣



▲ 清岩里 出土 숫막새 文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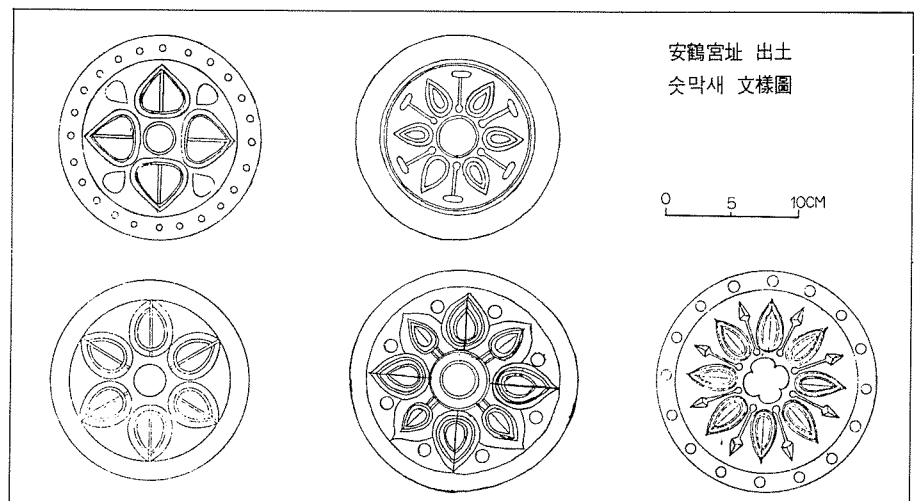
▲ 清岩里 出土 숫막새 文樣



▲ 清岩里 出土 암막새 文樣



清岩里 出土 숫막새 文樣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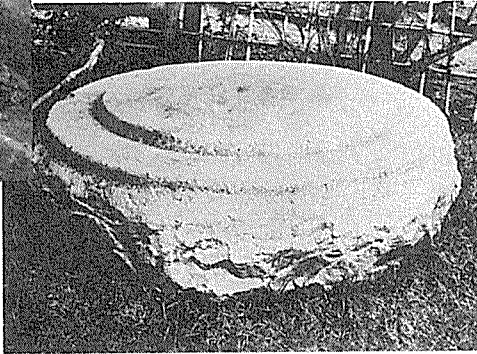
安鶴宮址 出土  
숫막새 文樣圖

0 5 10CM



平壤 中城正陽門址 周邊 礎石 ▶

◀ 平壤 浮碧樓礎石



민어진다. 이들 탑지의 기단 석열이 2 단으로 되어 있어 채양간(日本에서 裳階라 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定陵寺址

평양시 力浦區 城戌進里 五陵洞 (舊 平南 中和郡 東頭面 直坡里) 에 있는 東明王陵에서 남쪽으로 약210m 떨어져 8각 건물지를 중심으로 한 대가람이 조사됐다.<sup>14)</sup> 조사자는 이 遺址가 그 북쪽에 있는 東明王陵과 같이 高句麗와 서로 관련된 유적으로 보고 있다.

寺址의 유구는 동서 약20m, 남북 130여m나 되는 中心廓을 이루었는데 이 中心廓을 동서로 5개의 건물지群 區域으로 나누어 조성하였다. 이들 區域間에는 廻廊으로 區劃하여 막았다.

이중 중앙구는 동서 폭67m 량 되는데 남쪽에 중문지가 있고 그 남쪽에 8 각전지를 중심으로 동, 서, 북쪽에 금당지가 있다. 그러나 북금당지와 이 8 각 건물지 사이에는 회랑지가 가로막혀 있다. 8 각건물지는 활석으로 기단을 築成하였는데 그 깊이가 2m나 되었고, 기단 外周에는 淸岩里의 塔址와 같이 낙수받이의 割石이 깔 깔렸다. 이 8 각전지의 전체폭은 약20m로서 1변이 8.4m 되었고 동, 서, 남, 북의 4방면 중앙에 폭 1.3m(남·북변)~2.0m(동·서 변)의 입구를 두었던 흔적이 있다. 서금당지와 동금당지는 이 8각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들의 규모와 8각전지 (이후 塔址로 함)에서 떨어진 거리가 약간씩 달라져 엄밀한 좌우대칭의

배치가 아니다. 또 廻廊址로 차단된 북금당지는 그 양옆에 거의 비슷한 규모의 건물지가 나란히 놓여 있다. 이 금당지 북쪽에는 또 하나의 동서로 뻗은 회랑지를 사이에 두고 講堂址로 보이는 건물지와 그 동쪽에 원형의 건물지 그리고 그 북쪽에 다시 회랑으로 사방을 막은 건물지 1개가 독립하여 이 유구에는 외곽의 구들이 남아 있음을 보여 이곳이 지체높은 자가 기거하던 곳으로 보이었다 한다. 또 이 중앙구 동서측에도 廻廊으로 구획된 區域이 있어 그 폭은 中央區 보다는 훨씬 작아 절반 정도였다. 塔區(中央區) 서편의 區間에는 역시 ‘ㄱ’자로 된 구들을 시설한 飮事施設의 건물지가 있었고 그 서쪽의 구역 역시 건물지가 있었던 것 같으나, 교란이 심하여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 塔區의 동쪽 구역에는 건물지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다음 구역에는 북쪽에 역시 거실로 보이는 건물지가 구들 시설과 함께 노출되었다. 이상의 기술로 보아 이 寺址 역시 淸岩里寺址의 伽藍과 유사한 배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건물군과 군 사이를 회랑으로 뺄뺄히 막았고 이러한 건물지군 구를 동서로 여러구를 이루었음이 특이하고 또 건물지의 柱間으로 보아 보칸이 7~10m까지 되고 있어 이러한 長 5Span의 보가 과연 쓰여질 수 있었는지가 의심스럽다. 또 中央區 北회랑 북쪽에는 修石群이 인공적으로 놓여 造景을 꾀하고 있다. 이 사지에서 출토된 瓦片中에 「高句麗」〈陵寺〉등의 銘文瓦가 나와서 이곳을

定陵寺로 추정하고 있다.

출토된 암기와와 크기로 보아서 폭30cm 내외 길이45cm 정도되는 중기와가 많이 나왔고 瓦當은 주로 숫기와 와당만이 출토되었는데 고구려 특유의 주연이 깊고 뚜렷한 만두형과 細線形 遼瓣을 시문한 것들이며 또 특이한 草花文과 鬼面막새도 출토되었다. 암기와의 등 文樣은 전술한 안학궁지에서와 같이 발이 굽고 뚜렷한 織布文이다.

또 鐵片으로는 주로 못종류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각쇠와 문고리쇠(혹은 발걸이 쇠)로 보이는 것과 갈구리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이 사찰의 시기는 출토 유물과 유적의 성격으로 보아 청암리 것보다 앞선 것으로 보고 375년에 세운 초문사나 이불란사보다는 후대의 것으로서 기록에 있는 평양 9사중의 하나로 추정하고 있지만 확인은 어렵다. 어쨌든 이와 같이 횡으로 여러 구를 병치하는 가람의 시초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를 비롯하여 고려시대를 통하여 흔히 사용됐음이 백제 미륵사지나 軍守里 寺址, 신라의 황룡사지, 고려의 흥왕사나 만복사지 등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다.

□ 註

- 1) 李基白：韓國史新論，一潮閣 1985.
- 2) 魏告 高句麗傳에 「其人性凶急 喜寇鈔」 혹은 「國人有氣力，習戰闘，沃沮，東滅皆屬焉」이라 하여 가히 짐작된다.
- 3) 1905年 調査報告書
- 4) 小泉顯夫：朝鮮古代 遺蹟の遍歴 六興出版 1986.
- 5) 金東賢：삼국시대의 건축 韓國美術史 大韓民國 藝術院 1984. p. 145
- 6) 前掲書.
- 7) 張慶浩：垓子の 起源과 그 機能에 관한 考察. 三佛 停年退任紀念 論叢Ⅱ
- 8) 關野貞：朝鮮の建築と藝術.
- 9) 前掲 小泉顯夫著書. p. 328.
- 10) 關野貞：前掲書
- 11) Michele Pirazzoli T. Sersteuens : Living Architecture Chinese, Macdonald London 1972.
- 12) 祀英壽：中國古代建築年代的鑿定 文物, 1965年 第4期.
- 13) 小泉顯夫 前掲書
- 14) 東명왕릉과 진주못 발굴조사 보고 1975.